

‘367일의 기다림’ 끝났다…KIA 이의리 출격 대기



함평 퓨처스리그서 2이닝 소화…최고 구속 151km

“야구할 수 있어 행복…등판하는 경기 전승하겠다”

367일의 기다림을 끝낸 이의리가 “홀가분하다. 야구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활짝 웃었다.

KIA 타이거즈의 이의리가 22일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를 통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지난해 6월 20일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이의리는 이날 선발로 나와 2이닝을 소화하면서 39개의 공을 던졌다.

볼넷 하나를 허용했고, 야수진의 아쉬운 수비로 1실점(비자책점)은 했지만 최고 151km의 직구를 뿌리면서 4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이의리는 21개의 직구(평균 146km)를 던졌고, 슬라이더(7개·131~138km), 커브(3개·124~128km)도 구사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공을 던질 수 있게 됐다

는 점이다. 이의리는 “367일 만이다. 작년 5월에 공을 던졌고, 6월에 수술을 했다. 이를 전이 수술한 지 1년이다”며 “생각보다는 긴장을 많이 안 했다. 라이브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마운드 올라가니까 생각보다는 익숙한 느낌이었다”고 첫 실전을 이야기했다.

이어 “목표가 포수한테 집중하는 것이었다. 또 전력 투구를 생각했는데 그게 잘 된 것 같다. ‘고생했다’, ‘잘던졌다’고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고 웃었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채울 생각이다.

이의리는 “마지막 타자 때 조금 안 좋은 버릇이 나왔다. 뒤에서부터 끌고 와서 던져야 하는데 몸이 움츠러들어서 급하게 떨어지는 게 있었다”며 “또 확실치 오래만에 던져서 힘이 달린다. 긴장해서 힘이 풀리는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전을 시작한 이의리는 앞으로 60개, 80개로 투구수를 올려가면서 1군에서 뛸 수 있는 몸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가장 주목할 부분과 앞으로 신경 쓸 부분 역시 몸상태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복귀하는 게 이의리와 KIA의 목표다.

‘6월 중순’을 목표로 삼았던 이의리는 앞서 한 차례 잠시 재활 과정을 쉬기도 했고, 14일 예정됐던 퓨처스 경기를 미뤄 이날 마운드에 올랐다.

이의리는 “원래 스케줄을 빨리 잡았다. 몸상태가 잘 되기도 해서 미련은 크게 없다. 크게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육신거리는 정도이기는 했지만 한 번 아프고 나니까 완전히 해야겠다는 걸 느꼈다”며 “야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건강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잠시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 있었지만 물 흐르듯 잘 흘러온 지난 1년이었다. 그 사이 이의리는 더 건

강하게 야구를 하기 위한 ‘여백’도 그렸다.

이의리는 “박창민 (트레이닝) 코치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서 재활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조금 더 연습량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1·2군 모든 코치님, 팀장님들 모두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운동도 강박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컨디션에 맞춰서 몸을 덜 혹사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시즌 때 월요일마다 나와서 운동했었다. 운동 안 하면 살이 빠지기도 해서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을 버리고 할 생각이다”고 이야기했다.

재활과정에서 몸보다는 마음이 힘들기도 했다. 간절하게 바라던 팀의 우승 순간을 그라운드 밖에서 지켜봐야 했던 만큼 지난해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의리는 과거가 아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설 계획이다.

이의리는 “작년에 아쉽기는 했지만 있었다. 팀에 돌아가서 폐를 안 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리받는 대상인데 감독님, 코치님께서 해주신 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등판하는 경기 전승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기다리고 응원하는 팬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의리의 등판이 예고되면서 이날 챌린저스필드에는 많은 팬이 찾아 주자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의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나와 (김)도영이 없을 때도 퓨처스 많이 찾아와주시면 좋겠다”며 “모든 선수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야구를 하고 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KIA 타이거즈의 이의리가 22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재활을 하였던 이의리의 첫 실전 피칭이다.

KIA 성영탁, 어디까지 갈까

데뷔 후 ‘17.1이닝’ 연속 무실점
타이거즈 신기록·KBO 리그 3위

KIA 타이거즈의 성영탁이 나올 때마다 기록을 만든다.

성영탁은 올 시즌 KIA의 히트 상품이다. 하지만 5월 20일 성영탁이 1군에 등록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부산고 원투펀치로 활약했던 성영탁은 변화구·제구 능력에 비해 스피드가 부족해 지난해 10라운드 96순위로 KIA 지명을 받았다.

올 시즌 직구 스피드를 140km대 초반까지 끌어 올린 그는 프로 2년 차에 정식 번호를 받고 1군 데뷔에도 성공했다.

자신 있는 피칭으로 차근차근 이닝을 지워가던 성영탁은 지난 19일에는 조계현의 이름을 소환했다.

성영탁은 KT와의 홈경기가 열린 이날 5·0으로 앞서 8회초 올라-전상현에 이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왔다.

그리고 안현민-이정훈-로하스 등 파워 있는 타자들을 삼자범퇴로 잡고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데뷔전부터 시작된 무실점 이닝을 14.2이닝으로 늘렸다.

1989년 조계현이 기록했던 타이거즈 데뷔 최다 무실점 이닝 ‘13.2이닝’을 넘어선 새로운 기록이었다.

9개의 공으로 8회를 처리했던 성영탁은 9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10개의 공으로 아웃 카운트 3개를 더하면서 ‘15.2이닝’으로 타이거즈 기록을 연장했다.

타이거즈 새 기록을 달성한 뒤 “자신감 있게 하



프로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고졸 2년 차’ 성영탁이 무실점 이닝을 이어가면서 타이거즈를 넘어 KBO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이제 기록 세웠으니깐 마음 편하게 자신 있게 이기는 경기 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던 성영탁은 21일 SSG 원정에서 또 다른 선배를 넘었다.

이날 KIA는 5·3에서 9회말을 시작했지만 마무리 정해영이 흔들리면서 5·5 동점을 허용했다. 1사 1·2루의 위기가 계속됐고, 정해영이 정준재에게 조구 볼을 던지자 이범호 감독은 성영탁을 투입했다.

썩씩하게 잘 던져왔던 성영탁은 이번에는 야수진의 도움을 받아 무실점 이닝을 늘렸다.

2루수 김규성이 몸을 날려 정준재의 타구를 잡아 직선타를 만들었다. 이어 박성환의 우전 안타가 나왔지만 우익수 최원준이 레저 송구로 홈을

파고들던 2루 주자 에레디아를 잡아냈다.

성영탁은 10회에도 등판해 9개의 공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면서 ‘17.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성영탁은 KBO 역대 3위 기록을 바꿨다. 앞선 기록은 박노준(OB)이 1986년에 달성한 17이닝.

성영탁은 다음 등판을 통해 조웅준(현대·2002년)의 18이닝, 김인범(기움·2021년)의 19.2이닝 경신을 노리게 된다.

고민 많은 불펜 안정화에 한 축이 된 성영탁의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시선이 마운드에 쏠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울산, 클럽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브라질 플루미넨시에 2-4 패

K리그 팬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선전하겠다는 울산 HD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여정이 조별리그로 끝났다.

김판곤 감독이 지휘한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 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브라질)에 2-4로 패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김판곤 감독은 첫 경기에 앞서 이번 대회를 ‘K리그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장’으로 삼겠다는 출사표를 올렸다.

하지만 18일 열린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 첫판을 0-1로 진 울산은 F조 최강으로 꼽힌 플루미넨시에도 무릎을 꿇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국제 경쟁력은 커녕 K리그와 세계 무대의 격차만 여실히 드러났다.

울산은 FIFA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배분한 대회 출전권 4장 가운데 마지막 티켓을 받았다.

최근 아시아 대회에서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지난 시즌까지 리그 3연패를 이뤘던 명실상부 K리그 최고의 팀으로 우뚝 선 울산은 그러나 세계 무대에서는 ‘약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전술을 준비했다.

리그에서 사용하던 포백을 대신해 스리백을 꺼내

고, 팀 내 최고 준족 공격수 엄원상을 뒤편으로 내렸다.

이 같은 전략을 쓰고도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던 마멜로디에 0-1로 패한 울산은 플루미넨시 전에는 에릭과 엄원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후방으로 내리는 극단적 ‘옹크리거’ 전술을 썼다.

그런데도 네 골을 실점해 두 골 차로 졌다. 초반부터 고강도 전방 압박을 펼쳐 울산은 그라운드 반쪽에 가뒀던 플루미넨시는 이날 모든 경기 지점에서 압도했다.

무려 70%의 골 점유율을 기록한 플루미넨시는 슈팅을 25개나 쳤다. 이 가운데 유효슈팅이 8개였다. 코너킥도 12개를 기록했다.

반면 울산은 슈팅 10개, 유효슈팅 3개에 그쳤다. 처음으로 32개 팀 체제로 열리는 클럽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구단과 세계적 강호들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이정호 감독, 뉴캐슬전 K리그 코치로

7월 30일 ‘쿠판플레이 시리즈’ 1경기

광주FC 이정호(사진) 감독이 팀 K리그 코치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2025 쿠판플레이 시리즈’에 나설 팀 K리그의 감독으로 울산 HD FC 김판곤 감독을 선임했다. 이정호 감독은 코치 역할을 맡는다.

팀 K리그는 7월 30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25 쿠판플레이 시리즈’ 1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를 지휘하게 된 김판곤 감독은 지난 시즌 울산 사령탑에 올라 팀의 리그 3연패를 이뤘다. 현재는 울산 선수단을 이끌고 미국에서 열리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다.

김판곤 감독은 지난 시즌 K리그1 우승팀 사령탑 자격으로 팀K리그를 맡는다.

이정호 감독은 K리그의 ‘슈퍼스타’다.



2022년 광주에서 사령탑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정호 감독은 이해 K리그2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2023시즌에는 K리그1 3위를 지휘하면서 ACLE 무대에도 올랐다. ‘정효볼’을 앞세운 그는 K리그

에서 유일하게 ACLE 8강에도 오르는 등 K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광주의 축구 역사를 바꾸고 있다. 한편 뉴캐슬전에 나설 팀 K리그 선수단은 팬투표를 거쳐 구성된다. 각 구단이 제출한 후보를 바탕으로 팬투표가 진행되며 ‘쿠판영광’ 1명과 ‘팬 일레븐’ 11명이 결정된다. 이후 김판곤 감독, 이정호 코치, 연맹기술위원회가 포지션과 팀별 인원을 고려해 추가로 감독선발선수를 뽑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